

# 공공기관 '3%' 청년고용의무제 올해 말에서 2021년까지 연장

### 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실업난 고려... 청년고용 증진기업도 지원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2018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2023년 말까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심각한 청년실업난

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감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중이지만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청년고용 지원금 제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다수 의원발의법안이 계속돼 있으며 정부는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 직업교육·한국학 등 '한국형 온라인 강좌' 선정

교육부는 2018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직업교육·전공기초·한국학 등 23개 개별강좌를 선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케이무크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볼 수 있는 서비스로,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 단위 아닌 강좌 단위로 공모해 개별강좌와 묶음강좌를 각각 선정한다.

이번 개별강좌 공모 결과 총 41개 기관이 71개 강좌 계획서를 접수했다. 무크 전문가, 교수학습 및 학문전공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서면 및 대면평가를 거쳐 직업교육 분야 11개 강좌, 전공기초·한국학 분야 6개 강좌, 자율 분야 6개 강좌 등 총 23개 강좌를 선정했다.

전공기초 분야에서는 '수확사, 미생물학 입문, 세계 주요문화와 통번역의 역할' 등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강좌가, 한국학 분야에서는 서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다룬 '세계도시 서울의 도시 인문학' 강좌가 선정됐다.

취업준비생, 재직자 전공과목 기초 학습이 필요한 대학생,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등에게 한층 더 실용적이고 다양한 강좌가 제공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별강좌는 7월부터 제작돼 올해 하반기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케이무크 강좌는 누리집(www.kmooc.kr)에서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뉴시스



원광대학교는 창업역량인증 기준을 이룬 재학생 13명에게 첫 창업역량 인증서를 수여했다.

## 원광대, 창업역량인증제 인증서 수여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창업역량인증 기준을 이룬 재학생 13명에게 첫 창업역량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인증서 수여식은 지난 14일 교내 새천년관 시청각실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김도중 총장과 담당 교수를 비롯해 재학생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도중 총장이 학생들의 창업능력을 기르기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창업역량인증제는 창업강좌, 창업캠프, 창업동아리활동, 경진대회 참가 등 창업 과정 중 점검해야 할 내용을 단계별로 프로그램화하여 일정 시간 이수하고 해당 마일리지 취득할 경우 대학에서 창업역량을 인정해 학적부 및 성적표에 기재해주는 제도다. 특히 원광대는 교육부 LINC+사업

과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중소기업부 창업선도대학 등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돼 1학과-1기업-1특위, 융합전공, 국제(國際), 학제(學際), 직제(職際) 등 삼합신사(三合新士)교육, 플레이더트(Playdr) 수업, 도의실천인증제, 창업역량인증제, E-BOOK는문집 발간 등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고, 다중직업(多重職業)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은 2016년부터 대학생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One-Stop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2014년 선정된 창업선도대학사업을 통해 총 89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2017년 매출 489억, 수출 28억, 고용 2222명의 성과를 창출했다. /익산=우병희기자

## 전북기계공고서 베트남 교사 2명 석달간 교육활동 참여

###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운영 학교로 지정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위성욱)는 2018년 교육부가 주관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주최하는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운영 학교로 지정돼,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3개월간 베트남 현지교사 2명을 초청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초청된 Pham Thi Thai (31), Nguyen Thi Dinh(41)은 모두 베트남에서 풍부한 교육 경력을 가진 현직 중등교사로 각각 수학과 IT를 전공했으며, 본교에서는 초청교사와 관련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초청교사의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2018년 3월 30일에서 4월 27일 (4주)까지는 현지적응 및 한국어 협력교사(수학 소찬섭)의 수업을 참관하였고, (5주~8주)차시에는 초청교사가 직접 영어와 베트남어로 수업에 참여했다.

그리고 (9주~10주)에는 베트남 문화를 주제로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베트남 청소년에게 한국의 K-POP 열풍에 대한 협력수업을, (11주~13주)에는 전북도 문화관광 체험과 안주산업단지, 유네스코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운영 학교로 지정돼,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3개월간 베트남 현지교사 2명을 초청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등재된 마한백제문화권을 방문하여 한국역사와 문화를 설명하고 직접 체험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협력교사인 소찬섭 교사(수학)는 "처음 시작할 때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컸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3개월 동안, 그 걱정과 부담보다는 배움과 즐거움이 더 커진 것 같다. 초청교사 선생님과 함께 생활한 3개월의 시간 동안 '정'이 많이 쌓인 것 같다. '정'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위성욱 교장은 "마이스터고 공업계 고등학교로 취업에 집중하다보니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한층 더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 글로벌 세계화시대에 맞춰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접하는 좋은 기회가 더 많아질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비전대 창업보육센터 경영 우수기관 선정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한영수) 창업보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251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창업보육의 경쟁력을 다시금 입증 받았다.

평가결과 전주비전대 창업보육센터는 ▲기관의 전문성 ▲운영인프라 ▲사업계획의 효과성 ▲운영실적 관리 등 5개 주요 평가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6년 연속 B(보유역량 강화)사업 선정이라는 쾌거까지 이뤘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비전대 창업보육센터는 봉사관, 미래관, 실습동에 42개의 보육실과 다양한 지원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32개 기업의 창업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B(보유역량 강화)사업 선정은 신재생에너지와 기계분야이다.

센터는 지난해 경영 및 멘토링, 컨설팅, 기술 및 마케팅, 3D프린터 장비활용 지원, 네트워크 지원 등 총 80여 차례에 걸쳐 입주기업들

지원했다. 입주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총 140여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가 증가했고, 고용인원 역시 30%가 늘었다.

장길호 센터장은 "전주비전대 창업보육센터가 이같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한영수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창업 중심의 대학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 및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학교·보육센터 내외의 탄탄한 운영인프라, 입주기업들의 창업성과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평가부터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와 BI 보유역량강화지원사업 평가 통합 ▲평가등급제에서 요건 충족제로의 전환 ▲평가항목의 축소 ▲권별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개편됐다. /김재훈기자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교육 실시

전라북도교육청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15일 오후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018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에 도교육청 소속 각 기관 및 학교의 공공구매 담당자, 계약담당자 등을 참석시켜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소개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구매 방법 및 품목에 소광물 이용방법 ▲우선구매 관리시스템 관리·운영방법 ▲각종 평가지표 등에 대한 설명과 인내가 이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교육청 소속 각 기관 및 학교의 공공구매담당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우선구매를 확대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